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정책동향

Vol. 11
2013. 12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3. 11. 1~11. 30)

건축문화 부문

- 대한민국건축축박람회 10만여 명 몰려 성황
- 2013 인천건축문화제 개최
- 제2회 충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발표
-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성료
- "제12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3일 개관
- "건축과 함께 창의성 키워요" 초등학교용 건축교재 발간
- '디자인을 통한 도심재생',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국제세미나
- 2013 경기건축문화제 성황리 개최
-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들, 활동 기회를 넓혀주다
- 부산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지역발전성공사례 우뚝 !!

녹색 건축·도시 부문

- 공공 건축물, 시공 전에 '설계 적정성' 검토 ... 이젠 선택 아닌 필수 !
- 혁신도시 특색 있는 색 입는다
- 서울연구,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도시계획 및 관리 방안 연구협력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
- 인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공공공간과 원도심 중심으로
- '精 넘치는 녹색 아파트'
- 베트남 공무원 "한국 건설 정책 배우려왔어요!"
- 도심재생활동 지원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 부산시, U-산복도로 르네상스 완료, 서비스 제공 실시
- 건설 인허가시스템, 민원 2단계로 축소
-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첫 삽을 뜨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인천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 앞장서다
- 전남도, 2014년 신재생에너지 84억 투입
- 행복청, 정부3.0 자문위 구성
- 2013년 「건설고용포럼 세미나」 개최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
- 녹색건축물, 경기도에 가장 많아
- 전북도 "녹색아파트" 선정 발표
- 인천시, 전국 최초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제도 마련
- 친환경·저에너지 건축을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 가로수, 회색빛 도시에 녹색물감을 드리우다

이슈와 연구동향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2008~2013)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12월호 (통권 11호)

• 발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3. 12. 20 • 발행인 : 제해성 • ISS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TEL. 031-478-9845 Email. kslee@auri.re.kr(이경신)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이달의 정책 Highlights	5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6
<hr/>		
건축문화 부문	도시재생의 이해와 새로운 발상을 모색하는 전문가 특강	8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10만여 명 몰려 성황	8
	2013 인천건축문화제 개최	9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의 길을 따라 살펴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건축과 문화	9
	제2회 충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발표	10
	대중교통도 이제 '디자인 시대'	10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성료	11
	“제12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시상식 개최”	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12
	“건축과 함께 창의성 키워요.” 초등학교용 건축교재 발간	12
	서울의 건축, 얼마나 알고 계세요?	13
	부산시, 감천문화마을과 산복도로 이바구길을 연계한 '산복도로 조망 9경' 선정	14
	'디자인을 통한 도심재생',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국제세미나	15
	“재생에 문화를 입히다” 감만창의문화촌 개관식 개최	15
	2013 경기건축문화제 성황리 개최	16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들, 활동 기회를 넓혀준다	16
	올해에는 어떤 건축물들이 부산다운건축상으로 선정되었나? “도시건축시민투어에서 부산다운건축 만나요!”	16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역발전 성공사례 우뚝!!	17
<hr/>		
녹색 건축 · 도시 부문	인천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 앞장서다	18
	전라남도, 2014년 신재생에너지 84억 투입	18
	행복청, 정부3.0 자문위 구성	19
	2013년 「건설고용포럼 세미나」 개최	19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	20
	녹색건축물,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20
	전북도 “녹색아파트” 선정 발표	21
	인천시, 전국 최초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제도 마련	22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인	22
	가로수, 화색빛 도심에 녹색물감을 드리우다!	23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공공 건축물, 시공 전에 '설계 적정성' 검토 이젠 선택 아닌 필수!	25
	건축디자인사업 성공 열쇠, 현장에서 찾는다	25
	혁신도시 특색 있는 색 입는다	25
	제주형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집 발간	26
	서울 硯,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도시계획 및 관리 방안 연구협력	26
	인천시, 「지적재조사」 측량 본격 추진	27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도입	27
	인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공공공간과 원도심 중심으로	28
	원도심의 고령화에 대비한 주택정책 시행 필요	29
	'情 넘치는 녹색 아파트'	29
	베트남 공무원 "한국 건설 정책 배우러왔어요!"	30
	대전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30
	'원도심 활성화'우리가 앞장선다	31
	'도심재생활동 지원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 U-산복도로 르네상스 완료, 서비스 제공 실시	31
	건설 인허가시스템, 민원 2단계로 축소	32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첫 삽을 뜨다	33
	이슈와 연구동향 #6	주민참여형 도시재생(2008~2013)
APU Story #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58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건축문화 부문

11월,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지난 10월과 마찬가지로 건축문화행사가 활발했다. 먼저, 문화관광부에서는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의 길을 따라 살펴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건축과 문화'를 주제로 한 쇼케이스 전시회와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들의 활동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수상자 작품집 출판기념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밖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지난 13일 정식 개관하여 과천관에 이은 우리나라 대표 미술관이 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3년여에 걸친 연구를 통해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 건축 창의 체험이라는 제목의 초등학교용 기초 건축교재를 발간하였다.

경기도, 인천,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건축문화제가 활발히 추진되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 녹색건축·도시 부문

이번 달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건축물 대장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혀 정부3.0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인천시는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전국 최초로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등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밖에 전라남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도에 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보급 및 전기절약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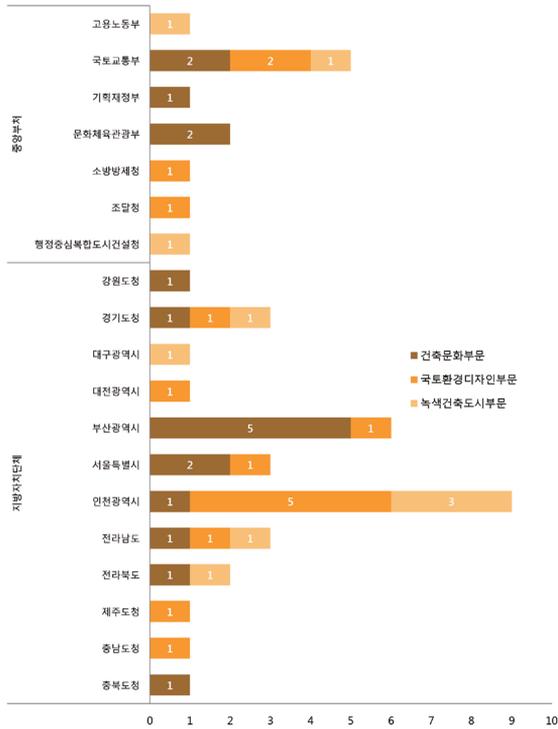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조달청이 그동안 잦은 설계 변경으로 낭비되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시공 전 '설계 적정성'검토를 필수로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 안전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설인허가 시스템 민원처리 절차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등 '건설인허가시스템'과 '포털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색채디자인계획을 수립해 특색있는 도시 이미지 구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인천시는 기존 주거지를 보존·개량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다.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2013년 11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건축도서관련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44건의 발표자료 중 중앙부처에서 12건(27.3%), 지방자치단체에서 32건(72.7%)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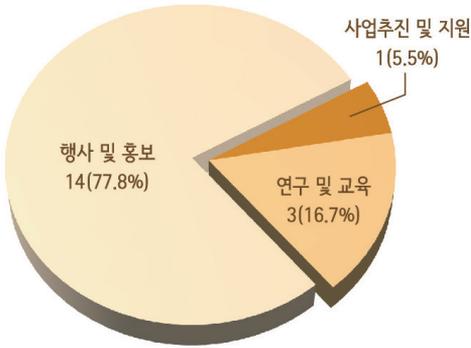


중앙부처는 전체 12건 중 「건축문화 부문」의 주요 시책 및 사업이 5건(41.7%)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서 중점 발표하였으며, ‘대중교통도 이젠 디자인 시대’,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들, 활동 기회를 넓혀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3이 개관’등과 같은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의 건축 얼마나 알고계세요?’, ‘디자인을 통한 도심재생’,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국제세미나’, ‘재생에 문화를 입히다-부산시, 감만창의문화촌 개관식 개최’,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10만여 명 몰려 성황’등 1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2건의 주요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발표한 부문은 「건축문화 부문」으로 13건(29.5%)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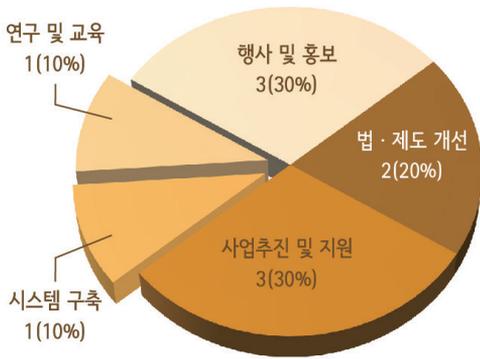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	1(2.3%)	-	1(2.3%)
	국토교통부	2(4.5%)	1(2.3%)	2(4.5%)	5(11.4%)
	기획재정부	1(2.3%)	-	-	1(2.3%)
	문화체육관광부	2(4.5%)	-	-	2(4.5%)
	소방방재청	-	-	1(2.3%)	1(2.3%)
	조달청	-	-	1(2.3%)	1(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2.3%)	-	1(2.3%)
	합계 (중앙부처)	5(11.4%)	3(6.8%)	4(9.1%)	12(27.3%)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청	1(2.3%)	-	-	1(2.3%)
	경기도청	1(2.3%)	1(2.3%)	1(2.3%)	3(6.8%)
	대구광역시	-	1(2.3%)	-	1(2.3%)
	대전광역시	-	-	1(2.3%)	1(2.3%)
	부산광역시	5(11.4%)	-	1(2.3%)	6(13.6%)
	서울특별시	2(4.5%)	-	1(2.3%)	3(6.8%)
	인천광역시	1(2.3%)	3(6.8%)	5(11.4%)	9(20.5%)
	전남도청	1(2.3%)	1(2.3%)	1(2.3%)	3(6.8%)
	전북도청	1(2.3%)	1(2.3%)	-	2(4.5%)
	제주도청	-	-	1(2.3%)	1(2.3%)
	충남도청	-	-	1(2.3%)	1(2.3%)
	충북도청	1(2.3%)	-	-	1(2.3%)
	합계 (지방자치단체)	13(29.5%)	7(15.9%)	12(27.3%)	32(72.7%)
	총 계	18(40.9%)	10(22.7%)	16(36.4%)	44(1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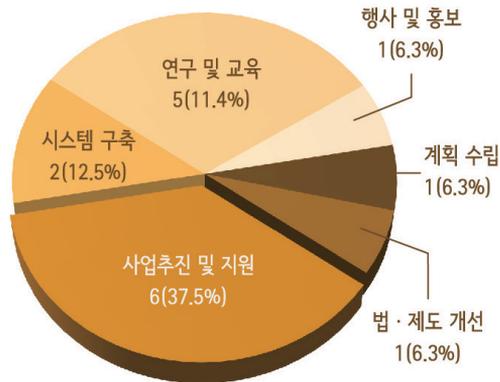


각 부문별 세부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전체 44건 중 18건(40.9%)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고, 그 중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14건(31.8%),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3건(6.8%),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1건(2.3%)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전체 44건 중 10건(22.7%)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녹색건축 도시 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각각 3건(6.8%),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2건(4.5%),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각각 1건(2.3%)씩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11월 한 달 동안 건축·도시관련 정책사업이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분야는 ‘행사 및 홍보’ 분야로 18건(40.9%)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되며, 그 다음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가 10건(22.7%), ‘연구 및 교육’ 분야가 9건(20.5%), ‘법·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분야는 각각 3건(9.6.8%), ‘계획 수립’ 분야에서는 1건(2.3%)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1(2.3%)	1(2.3%)
법·제도 개선	-	2(4.5%)	1(2.3%)	3(6.8%)
사업추진 및 지원	1(2.3%)	3(6.8%)	6(13.6%)	10(22.7%)
시스템 구축	-	1(2.3%)	2(4.5%)	3(6.8%)
연구 및 교육	3(6.8%)	1(2.3%)	5(11.4%)	9(20.5%)
행사 및 홍보	14(31.8%)	3(6.8%)	1(2.3%)	18(40.9%)
총 합계	18(40.9%)	10(22.7%)	16(36.4%)	44(100%)

■ 부문별 세부분야

도시재생의 이해와 새로운 발상을 모색하는 전문가 특강

부산시, 창조와 재생 아카데미 개최

부산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전문가 초청특강이 진행되는 ‘창조와 재생 아카데미’ 첫 번째 행사를 11월 4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마을활동가, 계획가, 청년서포터즈,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8회(월 2회) 실시되며 수강대상은 마을활동가, 계획가, 공무원 등 사업 관련자,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시민 등이다. 11월 4일 첫 특강은 충청지역 지역품앗이 ‘한밭레츠’대표를 역임했던 박용남 소장(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이 ‘주민과 도시’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이어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창조와 재생 아카데미’는 부산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향후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www.busanmae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인 ‘도시재생마을 창조벨트 구축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최근 시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산복도로 투어버스’역시 이 세부 사업 중 하나이다.

2013.11.01.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10만여 명 몰려 성황

주제관 최고 인기, 자재 전시장서 33개 업체 13억 원 수익도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한옥의 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제3회 대

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6일 동안 10만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한옥건축박람회는 개막 첫날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등 7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박람회 기간 내내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까지 참여해 한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라는 평을 받았다.

전문가와 함께 목재를 직접 대패로 밀어보고 한옥공포를 조립해 보는 한옥 짓기와 한옥 전통 공구 체험, 한옥 구들 짓기 체험 등은 체험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제1회 한옥기능경기대회에서는 대목, 소목, 구들, 미장 등 5개 분야에 전국 1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기도 했다.

한옥을 지으려는 희망자들에게 질 좋고 값싼 자재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한옥 자재 전시장에는 행복마을 한옥이 늘어남에 따라 한옥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황토벽돌, 수공구, 편백소품, 펠릿 보일러 부스 등에 관람객들이 붐볐으며 참여한 33개 기업들은 5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7억 6천만 원의 주문 예약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 중 4일간 실시된 한옥 학술행사는 300여 명의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해 ‘한옥의 현대화’, ‘신한옥과 목조산업’, ‘우리가 돌보고 싶은 한옥’등 다양한 주제로 한옥의 정책 방향을 상호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명창환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한옥박람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내실 있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와 영암군은 한옥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홍보하고 한옥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한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1.05.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2013 인천건축문화제 개최

11.8~11.1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감”이란 주제로 열려

인천시(시장 : 송영길)는 11. 8 ~ 11. 13일까지 6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장)에서 『2013 인천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시건축사회, 경인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2013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인천건축문화제는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모토로 시작된 인천 유일의 건축 관련 문화행사로 올해는 인천의 신도심과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의 공간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창출의 아이디어 개념을 찾고자 “공감(空·感)”이란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본 행사는 11. 8일 1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3 인천시 건축상, 제10회 인천건축학생공모전, 제11회 도시건축사진공모전, 제15회 인천건축백일장, 제1회 인천건축물그리기대회 등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품 전시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축가(이호정 교수) 초대전 등 10여 개 테마의 전시회도 관람할 수 있다.

행사기간 중에는 건축영화 상영, 건축 세미나 등 다양한 건축 관련 문화행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3.11.06.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의 길을 따라 살펴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건축과 문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정보원 쇼케이스 전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는 11월 8일(금)부터 23일(토)까지 광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가치 있는 아시아문화 발굴 및 문화 다양성 보존을 위해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원 수집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쇼케이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조사연구 사업 결과물의 일환으로, 아시아 대서사시와 관련된 공간·건축 문화를 주제로 인도 남부와 인도네시아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조사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전시는 총 6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라마야나’와 관련된 아시아의 공간과 건축 문화에 대해 일반 대중들도 이해하기 쉽게 꾸며진다.

주요 부문인 ‘아시아 공간·건축과 라마야나 서사시’에서는 힌두 2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로 인도를 넘어 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는 라마야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와 관련된 공간과 건축 문화가 인도 남부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표현되고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한편, 11월 12일에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창작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업 결과 발표와 함께 진행될 이번 공연에서는 아시아 서사시의 대주제인 범아일여(梵我一如) 혹은 ‘다르마’(Dharma, 우주와 세상의 질서)와 ‘카르마’(Karma, 운명과 업),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 공간 개념인 ‘판’(판소리, 재담, 춤 등이 펼쳐지는 곳)에서 펼쳐지는 라마야나의 이야기 한 자락과 아시아 서사시의 주제 해석이란 주제로 쇼케이스가 펼쳐진다.

2013.11.07.
문화체육관광부 전담기획과

제2회 충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발표

충북도가 '아름다운 나의 도시 충북'을 주제로 개최한 제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결과 총 142점 중 대상 1점을 비롯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특선 19점 등을 선정해 입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맨홀 래더(문지수)'는 안전 표지판과 결합된 맨홀 사다리를 제안하여 기능성, 활용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계단 손잡이를 움직이게 하여 짐을 가지고 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편리하도록 디자인 한 'Moving Carrier(함현경)', 작은 아이디어로 공중화장실의 구조 디자인을 변경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 'The Trapezoidal Toilet(박지혜, 김태진)'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도는 수상작에 대해 도내 공공디자인 사업계획 시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을 지속 추진하는 등 특색 있고 아름다운 충북을 디자인해 나갈 계획이다.

2013.11.07.
충북도청 공보관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산업기술연구 이사장상은 'Dual Mode Vehicle-Busrail(이해륜)'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상에는 'Tae-gueuk(이종훈)', '움직이는 전망대(전성우)', 'Twinkle star of Seoul(이강욱)', 'Ole Tram(강유광)', 'Gori(박예린)', 'BEACH RO(이군령)', 'Bus of Future Life(전봉근)'등이 선정됐다.

도시철도, 고속철도, 경전철, 개인교통수단 PRT, 트램, 버스, 기타 등 대중교통 분야별로 총 69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는 전문가들의 심사로 진행된 예선과 선호도 조사 등 의견수렴을 일부 반영한 본선심사 2차례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예선심사에서는 디자인 및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작품이 내포하는 지역 특성과 심미성, 독창성 및 기능성 등에 주안점을 두었고, 본선 심사에서는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인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순회하여 작품 전시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수상작품들은 앞으로 기능성, 실용성을 보강하여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 자치단체도 배포하여 향후 계획 중인 대중교통수단의 외형디자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도 이제 '디자인 시대'

행복 대중교통 디자인 공모전

대중교통도 이제 디자인 시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 「도시의 모습을 바꿀 행복 대중교통 외형 디자인 공모전」의 국토교통부 장관대상 수상작으로 김요환 씨의 'Free Pass LRT'를 선정했다.

본 공모전은 산업기술연구회,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실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참신한 디자인을 발굴하여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고 대중교통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요환 씨 작품은 운행시간 단축과 친환경 차량을 고안해 미래 도시철도 차량의 모습을 형상화



■ [대상] Free Pass LRT(김요환)



■ [금상] Dual Mode Vehicle(이해륜)

2013.11.08.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11월 8일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한 김완주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가족을 생각하며 밥을 짓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집을 짓는 것도 그 집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가치를 더해 가장 전복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 이승복 토지구택과장은 “도민과 함께한 이번 전북 건축문화제가 새로운 건축문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건축이 우리 삶의 배경으로서 여유롭게 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는 것을 도민이 자연스럽게 느끼고 건축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또한 건축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2013.11.11.
전라북도 토지구택과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성료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대회, 건축모형 만들기 체험, 건축 올림피아드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큰 호응

“경계 그리고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많은 도민과 학생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 5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도청사 일원에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단위 관람객 등 총 3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올해 건축문화제는 예년과 달리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초등학교의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대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축올림피아드 경연대회, 건축모형 만들기 체험, 건축영화제, 건축 작품전시 등 다양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제12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시상식 개최”

강원도는 11월 12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12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일반과 기관 부문(시설치/창작/간판정비)으로 나누어 응모가 이루어졌으며, 총 150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수상은 대상 김태은(작품명, 디자인! 세상을 밝히는 빛)씨를 비롯하여 부문별로 1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통해 도시 가로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간판 디자인을 발굴함으로써 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경관 간판 정착 등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수상작품은 오는 12월부터 도를 시작으로 시군 순회전시를 하여 도민들에게 우수 간판디자인을 소개함으로써 광고문화의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강원도 간판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상>

<최우수상>

■ 강원도 간판정비사업 수상작 예시

2013.11.12.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하 서울관)이 11월 정식 개관했다.

서울관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옛 군구기무사령부 터에 부지 2만 7264㎡, 연면적 5만 2125㎡, 지하 3층 및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2009년 1월 서울관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4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관은 군도형으로 독립된 8개의 전시실 외에 영화관, 도서관, 멀티프로젝트홀, 관람객 참여형 교육공간, 각종 편의시설(레스토랑,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북카페 등)등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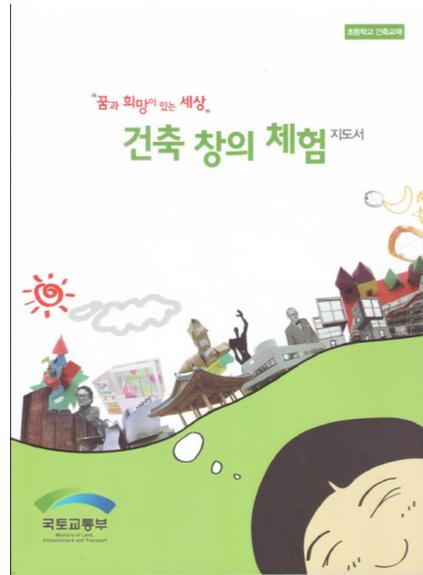
서울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되며, 기존의 과천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월 '국립세종도서관'에 이어 내년 5월에는 '한글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앞으로도 문화융성의 국정 기조에 걸맞게 국립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2013.11.13.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건축과 함께 창의성 키워요.” 초등학생용 건축교재 발간

『건축 창의 체험』...건축의 공공재적 가치 이해와 동시에 상상력·창의성 배양



■ 교육교재 표지 사본(본서)

건축에 대한 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계발·배양하기 위한 초등학생용 기초 건축교육 교재가 발간되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건축 창의 체험』이란 제목의 본 교재는 건축의 교육적 가치에 착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지난 2011년 개발에 착수하여 3년여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 등을 거쳐 올해 10월에 완성되었다.

이번 교재 발간은 건축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요소 발굴 등 어린이들에게 사회 공공재인 건축을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고, 국토교통부의 기획 및 총괄 하에 대한건축학회 및 대한건축사협회가 교재의 연구와 집필을 맡았으며, 건축계·교육계 등 각계 40여 명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만들어졌다.

교재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서와 교사들을 위한 지도서로 나누어 각각 개발·발간했다.

기본서는 '사람과 건축', '집과 생활' 및 '마을과 도시 만들기' 등으로 구성해 어린이들의 흥미 유발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으며, 교사들을 위한 지도서는 기본서의 내용에 맞추어 자세한 보충설명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11.13.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울의 건축,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서울시 소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건축 가이드북', '서울건축 문화지도' 발간

서울시는 시내에 소재한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 건축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안내서와 투어지도인 「서울건축 가이드북」과 「서울건축 문화지도」를 발간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건축 가이드북」과 「서울건축 문화지도」의 발간을 통해 의미 있는 건축 문화 자산을 홍보하고 장소의 의미와 주제가 있는 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

「서울건축 가이드북」은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 등 서울을 대표하는 총 380여 개의 건축물을 선정하여 수록한 서울건축의 안내서이다. 「서울건축 가이드북」에 수록된 건축물들은 1000여 개 이상의 건축물 중 공공건축가를 비롯한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각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시대별·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시대별 서울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 도시와 건축의 역사적 변화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이드북 내용 구성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서울건축 가이드북」과 함께 발간된 「서울건축 문화지도」에는 서울시의 의미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건축과 도시가 어떻게 어우러지며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쫓아가며 체험할 수 있도록 10개의 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서울건축 문화지도」의 코스들은 10월에 열린 '2013 서울건축문화제'의 '건축문화투어'의 코스들로 활용되어 모집 당일 투어 예정 인원의 세 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향후 건축문화투어의 지속적인 진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건축 가이드북」과 「서울건축문화지도」는 각 구청 민원실, 서울시청 시민청 및 서울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모든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의 제공이 추진 중이다. 또한, 2017 서울시의 세계건축대회 유치와 더불어 우리 시의 건축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판도 제작할 예정이다.



■ 「서울건축 가이드북」 표지

2013.11.14.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부산시, 감천문화마을과 산복도로 이바구길을 연계한 '산복도로 조망 9경' 선정

부산관광공사와 협의하여 감천문화마을, 이바구길 등 산복도로 조망 9경을 연계한 버스투어 코스 및 착한 여행 힐링 코스 개발 추진

부산시는 원도심 지역인 서구, 중구, 동구와 함께 '도시재생 마을 창조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복도로의 조망 9경'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산복도로 조망 9경' 선정 사업은 지난 8월 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등 산복도로를 낀 9개 구청으로부터 조망권 추천 신청을 받아 시작되었다. 이후 해당 구청이 추천한 32개소에 대해 '뚜벅이조사단'이라는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 및 공무원과의 공동 현장답사를 거쳐 최종 9경을 선정하였다.

구 분	위 치	추 천 사 유	비 고
중구	망양로 355번 길 22	· 금수현의 음악살롱: 북향, 남향, 용두산 공원 조망 북카페 조성	
	중구 민주공원	· 민주공원 옥상, 야경이 아름다움	사진9
서구	천마산로 370 (초장동)	· 북향, 남향, 민주공원, 영도대교 및 대마도까지 조망 가능. · "천마산 10리길"이라는 산책로 인접. · "한마음행복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가능	사진2
동구	망양로 486번 길 14-13(초량동)	· 이바구 공작소: 산복도로의 풍경과 산복도로 사람들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공간으로 야간경관이 아름다움	사진3
	망양로 580번 길 2 (초량동)	· 유치환의 우체통: 북향, 영도구, 오륙도 조망, 산복도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옴	사진4
	중복산로 20번 가 13-2 (범일동)	· 중산공원: 산복도로 삶의 정취를 이바구와 문화체험을 통해 신·구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보유	사진5
	초량동 994-154	· 168계단: 탁트인 부산항 조망, 산복도로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음, 향후 모노레일 설치예정	사진6
사하구	감천2동 2-347	· 하늘마루 전망대: 용두산공원, 남포동, 북향 전경	사진7
	감천2동 10-13	· 감내 어울터 옥상 전망대: 마을 전경을 근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 옥상(런닝맨 촬영지)	사진8



■ 조망사진

'산복도로 조망 9경'은 △망양로 355번 길의 '금수현의 음악살롱'△천마산로 '한마음 행복센터'△망양로 '이바구 공작소', '유치환의 우체통'△범일동 '중산공원'△감천동 '하늘마루 전망대'등 9개소이다. 부산시는 이번 9경 선정으로 기존의 감천과 산복도로의 시설물들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관광객을 모으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산복마을 어르신들의 문화해설사 등 고용 창출 및 관광 마케팅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9경을 연결하는 산복도로 투어버스 운행 및 각종 힐링여행 코스 개발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부산관광공사와 협의 및 조사단 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산복도로 조망 9경'선정으로 감천문화마을과 산복도로 이바구길 등을 연계하는 산복도로 9경 코스를 개발하는 등 산복도로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3.11.14.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디자인을 통한 도심재생',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국제세미나

11.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에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시는 11월 21일 목요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지하1층)에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_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후원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유네스코에서 도시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창의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돕고 이러한 발전 경험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34개 창의도시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시는 2010년 7월 디자인 창의도시로 지정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번 세미나는 '디자인을 통한 도심재생'이라는 주제 아래, '도심산업 활성화', '골목의 재발견'의 두 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주요 프로젝트 사례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쇠퇴한 도심산업과 골목의 재발견을 통한 도심 활력 찾기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로부터 학계, 업계, 디자인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부대행사로 국제골목사진전도 함께 개최된다.

2013.11.18.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재생에 문화를 입히다" 감만창의문화촌 개관식 개최

전국최초로 문화예술과 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된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 운영

부산시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인 부산시 소프트웨어 시책1호 사업 '감만창의문화촌'이 7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11월 20일 오

후 3시 남구 감만동 감만창의문화촌(구.동천초등학교)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김석조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전국최초로 문화와 복지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목적으로 감만항 인근의 옛 동천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시설과 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된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인 '감만창의문화촌'은 전체 부지 8,420㎡, 연면적 6,257㎡으로, 본관(4,468㎡)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별관(1,661㎡)은 복지시설인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소공원, 기타 128㎡의 부속동이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30일 공모를 통해 제1기 입주 예술가들을 선정했다. '감만창의문화촌'은 대표작가와 협력작가가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용되며, 입주작가는 여러 장르의 예술작업이 가능한 창작공간, 작가연구실, 공동창작 공간, 다목적 홀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조성과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커뮤니티홀, 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총 29명의 대표작가와 170명의 협력작가들이 창작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선정된 입주작가들은 협력작가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창작공간을 함께 쓰며, 개인 창작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티 활동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만창의문화촌은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적 역할을 해 온 부산문화재단과, 지역주민들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하고, 문화복지를 통한 도시재생으로 주민 복지와 부산의 예술 문화를 꽃 피우는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감만창의문화촌 조감도

2013 경기건축문화제 성황리 개최

도민과 건축인 화합 소통하며 건축문화 공유하는 축제 한마당

경기도가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2013 경기건축문화제는 도민, 수상자, 건축관계자 등 600여 명과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기건축문화제는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로 '경기도건축문화상', '경기 학생 건축물 그리기대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300여 점이 넘는 건축 작품이 전시되고, 전문가 초청강연과 연주회, 참가자를 위한 건축관련 상담 및 진로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한 학생 건축물 그리기대회와 도시건축 사진공모전에 참가한 꿈나무들에게는 전시장에 전시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해 미래 건축가에 대한 꿈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용승인 부문 대상에는 용인 죽전1동 '하늘의 문 성당'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전국 공모로 실시된 계획작품 부문 대상에는 한양대학교 김예림 학생이 출품한 'deom'이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도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경기 학생 건축물 그리기대회에는 우만초등학교 김소현 학생의 '꽃밭을 달리는 예쁜기차집'이 초등부 대상을 차지했고, 분당중학교 강지선 학생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중등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1회 도시·건축 사진공모전에는 한빛중학교 김은지 학생이 출품한 '파주 한빛마을 6단지'가 학생부 대상을 차지했으며 일반부에서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영진씨의 '안양예술공원'이 대상을 받았다.

2013.11.22.
경기도 건축과 건축관리팀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들, 활동 기회를 넓혀준다

11. 27. ~ 12. 3. 수상자作品集 출판기념 및 전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와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3 젊은 건축가상作品集'출판기념회와 전시회가 오는 11월 27일(수)부터 12월 3일(화)까지 인사동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문체부는 우수한 신진 건축가들을 선정하여 육성하자는 취지로 2008년부터 매년 '젊은 건축가상'을 시상하고 있다. 선정된 젊은 건축가들의作品集은 국·영문으로 제작해 국내외 건축 관련 기관·단체에 배포하여 수상하는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로는 lokaldesign의 신혜원(42세), 오우재건축사사무소의 김주경(41세), 최교식(37세), 제이와이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의 조장희(33세), 원유민(32세), 안현희(32세)씨가 선정되었다.

올해 11월 27일 발간될作品集은 서울여자대학교 민병걸 복디자이너가 담당하고, 한겨레 구본준 기자가 글을 엮어, 전문가들만을 위한 전문서적이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作品集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11.28.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올해에는 어떤 건축물들이 부산다운건축상으로 선정되었나? “도시건축시민투어에서 부산다운건축 만나요!”

'제22차 부산도시건축 시민투어' 진행

부산시는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주관으로 시민 60명을 모집해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부산의 도시, 건축을 탐방하는

‘제22차 부산도시건축 시민투어(이하 건축투어)’가 11월 30일에 시행됐다.

이번 건축투어는 올해 진행된 총 6회 투어의 마지막 회로 ‘2013 부산다운건축상 수상작 탐방’을 주제로 부산의 아름답고 우수한 건축물들을 둘러봤다. 부산다운건축상은 부산 시에서 지역 내 우수건축물 발굴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반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금상 1곳(라임유치원, 강서브라이트센터), 은상 1곳(KNN센텀신사옥, 센텀119안전센터), 동상 3곳(더박스, DS Centre, CODE SQUARE, 부산시 학생예술문화회관, 부산시 건설기술교육원, 고리발전소 사옥)이 선정되었다.

건축투어 참가자들은 오전에 △더박스(카페) △센텀119안전센터(소방서)를 둘러보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강서구에 위치한 △라임유치원 △강서브라이트센터(문화복지시설)를 방문하며, 각 건축물마다 설계자가 직접 시민과 만나 건축물에 대해 해설을 했다.

조서영 건축투어운영위원장(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은 “이번 코스는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다운건축상으로 공인받은 부산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이다. 각 작품을 설계한 건축가들에게 직접 건물에 대한 해설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일반 시민은 물론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특히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2013.11.25.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역발전 성공사례 우뚝!!

새 정부의 첫 번째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통령표창 수상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3년도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지역발전대상(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 대규모 도시재생으로 낙후지역의 창조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모델, 그리고 주민주도의 사업추진, 마을공동체 회복 및 지속발전 기반 형성, 스토리텔링 공간 이야기가 있는 공간 조성 등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민관 파트너십과 경제적 자립 부문과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지로 행정지원 및 주민공동체의 소통으로 조성해가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14일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안전행정부주관 ‘2013년 민간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도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12월 11일 예정)할 예정이다.

11월 27일 부산에서 개최된 2013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산 중턱의 오래된 집과 골목을 허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부산의 산복도로와 지역의 역사와 건축자산, 음식문화를 결합한 전주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하고, “각 지역마다 풍부한 고유의 자산에 창의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벽을 허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2.5)에 맞추어 국내외적인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아,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창의와 혁신을 접목한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13.11.28.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인천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 앞장서다

도시개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시장 : 송영길)는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법령 등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11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주요 내용은 ① 법령 해석의 논란 해소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사항 명시 ②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합정관 작성기준 제시 ③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자 지정 등 일부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 ④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경관보호 등을 위한 결합개발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적용 ⑤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녹색도시개발계획 우수등급 인센티브 부여 ⑥ 도시기반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선학지구 등 11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도시개발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2014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비용과 사업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미매각 체비지(229필지 229,000㎡)에 대해 매각방안을 마련해 특별 매각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29개소, 10,063,000㎡이다.

2013.11.11.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전라남도, 2014년 신재생에너지 84억 투입

공공청사 태양광발전·단열창호·취약계층 LED 전등 교체 등 추진

전라남도는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보급 및 전기절약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4년 8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 시군 청사의 단열창호와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시스템을 교체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사업으로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백열전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한다.

전라남도는 또 정부 지원사업과 별도로 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및 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해양 및 수상 태양광 시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간부문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고 있다.

김태환 전라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최적의 자연 여건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미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은퇴자 마을에 공동 태양광발전 설치,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1.12.
전라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실

행복청, 정부3.0 자문위 구성

공공행정·도시계획·사업관리·U-City 분야 총 7명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정부3.0 실행계획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부3.0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브리핑실에서 ‘행복청 정부3.0 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열 목원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 자문위원: 신열 교수(목원대), 성장환(토지주택연구원), 이상호 교수(한밭대), 이창소(삼성SDS), 박종관(기획조정검토팀), 오명갑(한국전력기술), 윤상오(단국대)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TF(Task Force·전담반) 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의 가치를 공유하고 정부3.0 추진 계획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행복청은 공공행정·도시계획·사업관리·유시티(U-City·유비쿼터스 도시)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실무적 감각을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행복청만의 차별화된 정부3.0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행복청 정부3.0 자문위원회는 행복청 정부3.0 추진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며, 정부3.0 계획의 이해와 가치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2013.11.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창조행정담당관실

2013년 「건설고용포럼 세미나」 개최

민·관 협력을 통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논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11월 14일(목)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3년 「건설고용포럼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실장의 “건설기능인력 수급 실태 및 전망 분석과 주요 시사점”과 한양대학교 임상훈 교수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주제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심규범 연구실장은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현재 건설현장은 고령화 및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기피, 불법 외국 인력의 증가, 낙찰률 저하로 인한 노무비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촉진 및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는 적정 노무비 확보,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임상훈 교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방안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략 목표를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능등급제 도입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거점 훈련시설 운영 및 실업급여 연계 훈련 실시. 둘째, 전자카드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 DB 구축 및 모바일 연계 구인망 구축. 셋째, 건설산업 최저임금제 도입 등 복지 지원을 위한 이동식·누적식 복지사업 등을 언급하였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건설 관련 노동단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용포럼 세미나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좋은 정책제언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3.11.14.
고용노동부 고용지원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

민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정보 '본인 입맛대로 검색 및 가공' 가능해져

앞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1월에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하였고,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 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며, 앞으로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3.0을 구현할 계획이다.



2013.11.15.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녹색건축물,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녹색건축 인증 건물 503건으로 전국 최다 기록, 내년부터 에너지소비증명제 시행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 내 건축물은 모두 503개소로 1,241개소인 전국 녹색건축물의 40.5%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녹색건축 인증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2년부터 시행된 녹색 건축 인증제도는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인증해주는 제도로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평가를 통해 인증을 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건축물의 에너지 및 환경오염,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분야로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그린 1등급)부터 일반(그린 4등급)까지 모두 4개의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 녹색 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환경개선부담금은 20~50%의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건축기준도 4~12% 완화된다.

한편,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

행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매매·임대 시 에너지소비증명제가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이 녹색건축물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소비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대학교수, 건축사, 연구원 등 녹색건축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실시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2012대한민국녹색건축대전 최우수상_ 성남삼평동우체국



■ 2013대한민국녹색건축대전 우수상_ 수원 매원초등학교

2013.11.19.
경기도 건축과 녹색건축팀

전북도 “녹색아파트” 선정 발표

전주 서신대우대창 아파트 대상 수상

전북도와 전북 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운동 확산을 위한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실시, 지난 3월 공모에 참여한 4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절감률,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그린터치 보급실적, 주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참여도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3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아파트에는 부상으로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과 녹색아파트 인증 간판이 제공될 계획이며, 시상식은 다음달 6일 그린스타트 운동 전북대회에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에 참여한 아파트들은 전년대비 856천kWh 전기를 절약하여(300kWh를 사용한 가정에서 1년간 237세대가 사용 가능) 온실가스 450톤을 감축해 소나무 16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중 3개소의 아파트(서신 대우대창, 광진 선수촌, 팔학골 영창 APT)는 탄소포인트제도에 전 세대가 가입하였으며, 팔학골 영창 아파트는 컴퓨터 절전프로그램인 그린터치를 100% 보급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전주시 서신동 “서신대우대창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회를 중심으로 탄소포인트제 100% 가입, 컴퓨터 절전프로그램 92% 보급, 전세대(390세대) 온실가스 진단, 월 1회 소등행사, 텃밭 가꾸기 등 적극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했다.

도는 전북주거형태의 5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서부터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범 도민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경진대회, 녹색생활 실천 인증 샷 콘테스트,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기후변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공모사업에서 수상한 아파트를 모델로 향후 녹색아파트 추진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녹색아파트 추진사업 계획

사업 목적	·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CO2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의 확산 및 실천		
참여 대상	· 녹색아파트 관심 있는 도내 아파트		
사업 기간	· '13. 4 - '12. 9 (6개월)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지원 내용	· 가정세대 에너지 진단, 주민 교육지원, 인센티브 · 대상 (1) - 3,000천원, 최우수상(2) - 각 2,000천원, 우수상(3) - 각 1,000천원		
평가 내용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중치
	① 전기에너지 절감율	(전년도 전기 사용량-금년도 전기사용량)/ 전년도 전기사용량×100	30%
	② 탄소포인트 제 참여율	탄소포인트 참여세대/아파트 거주세대×100※ 신규 가입시 가산점 부여	20%
	③ 그린터치 보급율	컴퓨터 전력절전 프로그램(그린터치) 보급율 ※ 그린터치 설치대수/세대수,	15%
	④ 가정 에너지 진단율	컨설팅 세대/아파트 거주세대×100	10%
	⑤ 주민참여도	전국 소등행사 참여율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참여율 기후변화 교육참여 등	25%

2013.11.19.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담당

인천시, 전국 최초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제도 마련

우수등급을 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개발이익 인센티브 받는다

인천시(시장 : 송영길)는 GCF(녹색기후기금) 유치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탄소흡수 부문(공원녹지 확보비율, 생태 및 자연 지반 면적률)과 탄소저감 부문(직주근접,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빗물이용 계획 등)이다.

평가결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주택의 규모별 배분기준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범위 안에

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배분기준을 자유롭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 주도의 획일적인 하향식 공급에서 민간 위주의 상향식 공급으로 전환되어 시장논리에 따른 자율성이 보장된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개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3.11.24.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광역시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 이인재 연구위원)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2013년 시행되는 녹색건축인증 제도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기존 “인천광역시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도의 여건 변화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환경·저에너지 인증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① 먼저 친환경·저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② 지역여건이 다른 원도심지역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제도의 적용대상과 달성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③ 민간 친환경건축물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인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중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항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축공모전 시행, 장기적으로는 인천시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3.11.27.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가로수, 희색빛 도심에 녹색물감을 드리우다!

차별화된 대구시 가로수 정책, 폭염도시 오명 벗고 매력적인 숲의 도시로

대구시는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명품가로수 조성을 통해 폭염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매력적인 숲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가로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대기정화 및 미(微)기후 형성과 함께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건물들이 밀집한 도심에서는 가로수의 가치가 돋보이게 된다. 대구시는 이러한 가로수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로수 2열 식재, 교통섬 수목식재,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등을 적극 추진했으며 지속적인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심가로 곳곳을 녹음이 풍부한 가로숲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가로수 식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1996년 8만 4천 그루였던 가로수는 현재(2012년 기준) 19만 2천 그루로 228% 증가했다.

대표적인 가로수는 우선 동대구로(파티마병원삼거리~두산오거리)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가 폭이 70m인 대로를 녹색으로 덮어 사계절 푸른 가로숲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대구역을 통해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먼저 녹색도시의 이미지를 각인해 준다. 또 폭 20m에 달하는 중앙분리대 녹지는 타 도시의 신도시 개발시 모델이 되기도 했다. 동대구로 가로숲은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생명의숲, 2000년)와 '아름다운길 100선'(건설교통부, 2006년)에 선정된 바 있다.

대구를 동서로 가로 지르는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사월교~강창교)는 전 구간(L=24km)에 걸쳐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식재해 양버즘나무 등의 가로수와 함께 많은 녹음 주고 있다. 달구벌대로 외에도 유니버시아드로, 중앙대로, 화랑로, 무열로, 팔공로, 신천대로, 유통단지로, 무학로, 호국로, 매천로, 와룡로 등 주요 도로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식재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선형의 가로녹지숲을 이루고 있다.

중앙분리대 수목 식재와 더불어 가로수 2열 식재는 보행자들

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보도가 넓은 구간에 추진한 가로수 2열 식재는 인도와 연접한 녹지 등에 가로수와 연계한 수목을 식재토록 해 보다 많은 구간의 가로수를 수목터널로 조성했다. 대표구간은 국채보상로(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일원)의 대왕참나무 2열 식재구간으로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한 숲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며 겨울철에는 수목경관 조명을 설치해 특색 있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니버시아드로, 동원로, 학정로, 안심로, 용학로, 수성못길, 동원로, 당산로, 두류공원로 등이 가로수를 2열 식재해 수목터널을 이루고 있다.

또 교차로 등에 설치된 교통섬에 수목을 식재해 가로경관 개선과 함께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섬 녹화지역은 범어네거리, MBC네거리, 계산오거리, 두류네거리, 삼각지네거리, 동대구역네거리, 큰고개오거리, 성당네거리, 죽전네거리, 만평네거리, 연호네거리, 본리네거리, 북비산네거리 등이 있다.

한편 대구시는 가로수의 수종 다양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로수로 잘 식재하지 않던 수종 중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을 발굴해 도입한 대표적인 수종은 이팝나무(앞산순환도로), 대왕참나무(국채보상로), 물푸레나무, 피나무(죽곡지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종들은 타 도시에도 파급돼 지금은 여러 도시에서 가로수로 식재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구에 가로수로 많이 심겨진 양버즘나무 1그루는 15평형 에어컨 10대를 4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며 여름철 가로수가 심겨진 곳은 없는 곳에 비해 평균 3~7℃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가꾸어 온 가로수를 앞으로도 잘 보존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심의 열섬효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가로수 수종 현황

계	은행나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벚나무류	단풍류	이팝나무	기타
191,883 (100%)	47,194 (24.6%)	41,864 (21.8%)	31,735 (16.5%)	22,937 (12.0%)	14,636 (7.6%)	12,752 (6.7%)	20,765 (10.8%)

주요 가로수 조성 현황

노선	구간	주요 수종	비고
신천대로	상동교~서변대교	느티나무 등	
달구벌대로	사월교~강창교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등	
동대구로	파티마병원~두산오거리	개입갈나무(중앙분리대) 폭 20m 중앙분리 녹지대	아름다운숲 전국대회(2000년, 생명의 숲) 아름다운길 100선 (2006.건교부)
동덕로	동인네거리~삼덕네거리	양버즘나무	
팔공산순환도로	파계삼거리~팔공CC삼거리	단풍나무, 왕벚나무	한국의 경관도로 52선(2011.국토부)



■ 동대구로 폭20m 중앙분리녹지대

2013. 11. 29.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

특 색	노 선	비 고
개입갈나무 3열 식재 대왕참나무 가로수 2열 식재	동대구로 국채보상로	파티마병원~범어네거리 국채보상공원 기념공원 일원
양버즘나무 가로수 직육면체형 가지치기	수성로, 태평로, 공평로, 현충로 등	
가로수 신규 수종 발굴 - 이팝나무 - 대왕참나무 - 물푸레나무, 피나무	앞산순환도로 국채보상로 죽곡 1지구	
주요교통섬에 수목 식재	주요간선도로 교차로	범어네거리, MBC 네거리 반월당네거리, 계산오거리 등



■ 동덕로 수목터널 양버즘나무 가로수

공공 건축물, 시공 전에 '설계 적정성' 검토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조달청,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의 설계가 적정한지 사전 검토

앞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조달청이 검토하게 된다. 조달청에 의한 설계 검토 대상 200억 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는 연간 약 50건이며, 20억 원 이상 설계변경 검토 대상은 연간 약 25건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사전 검토 의무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조달청이 11.1일부터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분야 및 대상은 일차적으로 건축사업이지만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의 효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감안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설계 적정성 검토 시기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지며,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과다·과소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한다.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설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기술검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사유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되어 연간 약 1,6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강화로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설계검토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건설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1.04.
조달청 시설기획과

건축디자인사업 성공 열쇠, 현장에서 찾는다

건축디자인사업, 농어촌 마을 특성 살린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경기도는 4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현장인 광주 서하리 마을회관에서 자문위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하리 마을은 네 경기도 농어촌건축디자인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로서 개성 없는 농어촌 마을에 마을 특성을 살린 건축디자인을 접목해 경관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서하리마을은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중심으로 테마가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지붕에 환경 색채를 입히고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서하리마을 사업현장을 세밀하게 둘러보고 이석현, 이수열 자문위원 사례발표, 마을주민 의견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명걸 도 건축과장은 “민간전문가들이 기획 단계부터 사업방향 등을 꼼꼼히 살피는 건축디자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가평군 상면 대보리 마을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도시, 조경, 공공디자인 등 민간전문가 2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2013.11.04.
경기도 건축과 건축문화팀

혁신도시 특색 있는 색 입는다

전남도, 노란색 중심 은은함·강인함 표출 색채디자인계획 수립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지

역 특색에 맞는 색을 입히는 색채디자인계획을 수립, 특색 있는 신도시 이미지 구현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혁신도시가 주변과 조화되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시의 주조색은 노랑색으로 하고 색의 강도 차이로 대비를 뒤 은은함과 강인함을 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 전체 이미지를 구현하고 각 용도별·지역별로 입면 디자인계획과 3D 색채계획을 제시해 누구나 그 도시의 이미지를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혁신도시 색채디자인계획은 지난해 4월 시행된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의 색채 적용 기준에 따라 마련한 색채디자인 계획에 대해 그동안 전남도와 국토교통부가 지역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 것이다.

설동진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색채디자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요 예산이 절감됐다”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만의 개성 있는 색깔을 갖게 돼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3.11.8.
전라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제주형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집 발간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 워크숍, 우수마을 사례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제주형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을발전 사업을 추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마을 만들기 사례집에는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협의회 등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진솔하게 풀어쓰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간 리더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실무형 마을 만들기 이야기를 담아낸다.

우수사례집은 마을발전 사업을 준비하는 마을에는 가이드북 역할을 하고, 현재 추진 중인 마을에는 상호 공유 자료로 활용하여 마을 만들기 분위기 확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 만들기 사례집 수록마을 중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2013년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 워크숍’에서 사례발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3.11.0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서울 硏,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도시계획 및 관리 방안 연구협력

서울 硏, 울란바토르시와 도시계획 프로젝트 공동수행, 전문가 인력교류 위한 협정체결

서울연구원은 11월 6일(수)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도시계획 및 관리에 대한 프로젝트, 연구인력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식에서 양 기관은 두 도시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 수행, 인력교류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번 교류협정을 통해 서울연구원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도시계획,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자료 및 전문가 인적 교류 사업 협력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울란바토르시는 당면하고 있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연구원의 축적된 연구경험과 노하우를 실질적으로 도움받게 되었으며, 서울연구원은 아시아 메가시티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도시 연구를 협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교류협정에 참석한 오치르바트(OCHIRBAT Sorogioo) 울란바토르시 부시장은 11월 5일(화) 개최된 2013 CITYNET 서울총회에서 분과 세션으로 운영된 ‘서울연구원 세션’에 참석하였다. 오치르바트 부시장은 이날 발표된 서울

의 대중교통 개혁, 2030서울플랜, 대기환경 개선, 폐기물관리에 대한 발제를 듣고 서울의 도시계획 및 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서울연구원의 연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을 체결하였다.

협정식에서 서울연구원장은 “아시아 메가시티는 발전의 수준이 다른 면도 있지만,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도시문제도 공존합니다. 특히, 아시아 메가시티는 유럽의 도시와 다른 아시아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교류협정은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울란바토르시의 도시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아시아적 도시의 가치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본격적인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치르바트 울란바토르시 부시장은 “울란바토르시는 발전의 속도가 빠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경험과 노하우는 울란바토르시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활용성이 아주 클 것입니다. 특히, 서울연구원과 같은 서울시의 싱크탱크와 우리 시가 함께 도시의 성장 경험과 과정에서의 문제와 정책을 함께 교류하길 희망합니다. 특히, 이번 상호 교류협력의 체결을 계기로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도시가 함께 아시아적 가치를 가진 메가시티 협력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연구원-울란바토르시 교류협력 체결

2013. 11. 09.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인천시, 「지적재조사」 측량 본격 추진

지적재조사 9개 사업지구(3,072필지 3,850천㎡) 지정

인천시에서는 지난 11월 8일 중구 무의1지구 등 9개 지구(3,072필지, 4,850천㎡)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9개 사업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집단으로 불규칙하게 일치하지 않아 주민 간 경계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이다.

현재 사업지구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된 측량조사 대행자는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해 경계분쟁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3. 11. 1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도입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활성화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에 지진 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하여 국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80년대 16회에서 90년대 26회, 2000년대는 46회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말 현재 벌써 80회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기준 도입 이전에 건축된 51,903동 중 16.4%인 8,519동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여 지진 발생 시 대피지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진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과 성과를 검토한 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동 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였다.

2013.11.14.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인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공공공간과 원도심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3년 상반기 기본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¹ 활용방안”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시에서는 최근 일부 아파트에 비상콜버튼, 적외선 감시 로봇, 360도 회전 CCTV 등을 설치하고 설계적인 측면에서

도 맘스존, 주동 출입구 전면유리를 설치하는 등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사)한국셉테드학회에서 공동주택 셉테드 인증을 받았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천과 서울의 일부 사례들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셉테드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천시의 인구수 대비 발생률은 원도심에서 높게 나타나고 범죄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노상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장소의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 결과, ①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하며, ②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주민주도형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고, ③신도시와 원도심의 차이를 반영한 셉테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④비용 효과적인 기법 위주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3년 수립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의 경우 신축건축물 위주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원도심에 적용할 원칙, 적용기법, 가이드라인, 예산 등이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계양 센트레빌(적외선 감시 로봇)

■ 염리동 소금길(소금 지킴이집)

2013.11.14.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¹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는 기법으로 접근통제, 자연감시, 영역성,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를 다섯 가지 기본원리로 한다.

원도심의 고령화에 대비한 주택정책 시행 필요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3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고령화에 대응한 원도심 정비방향(연구책임 : 이종현 선임연구위원)”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시는 2022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8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강화 및 옹진군의 경우 2001년도 이전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도심 지역은 중·동구 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계양구 및 부평구 등 비교적 오래된 주택지역도 그다음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과 같이 매립에 의하여 주택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도시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도심 지역의 고령화는 원도심 지역의 재생에 커다란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원도심의 슬럼화로 이어짐에 따라 도시의 전반적인 쇠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도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고령자의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한 보다 다양한 유형의 고령화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원도심 지역을 고령화 친화환경으로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용률이 낮아지는 기반시설 용지를 고령자기반시설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공간 등을 고령자 커뮤니티 조성에 필요한 용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인 가구 및 고령 가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상권형성이 활발하지 않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노인 전용 임대주택부지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 및 단지구조를 고령자가 편하게 이용하도록 디자인 및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무장애주택, 소규모 환승시스템 및 노인친화구역 지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도심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령친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시설과 병원, 공원 등이 근거리에 갖추어진 고밀도의 복합타운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령자의 주택환경개선 및 소득창출을 위하여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 또는 가변형 위주의 정비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는 고령자의 낮은 소득에 대응하여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3.11.15.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情 넘치는 녹색 아파트’

천안 대동다숲, 아산 동일하이빌에서 ‘그린홈 으뜸아파트’ 현판식

충남도는 15일 천안 불당 대동다숲아파트와 아산 풍기 동일하이빌아파트에서 입주자회 주관으로 그린홈 으뜸아파트 현판식을 잇달아 개최했다. 안희정 지사와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인증서 수여와 인증패 현판식 등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안 지사는 “아파트는 현대인의 주거문화 중심지로, 가족생활 및 휴식공간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마을 공동체 문화 조성 및 투명한 관리로 좋은 주거공간의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며 “올해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들의 우수사례가 도내 전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홈 으뜸아파트는 도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문화 조성과 저탄소 저에너지 실현을 통한 녹색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도내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일반관리와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 6개 분야 86개 지표를 평가해 규모별로 3개 단지를 매년 선정하게 된다. 이날 현판식이 열린 대동다숲아파트와 동일하이빌 아파트 외에도 서산

현진에버빌 아파트를 올해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선정했다.

대동다숲아파트는 공용 전등을 LED로 교체해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디젤에너지로 활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아파트 조성에 힘쓰고,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을 통해 공동체 화합분위기도 조성해 왔다. 이 아파트는 특히 매월 회계점검을 실시하고, 층간소음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애완견 등 동물사육대책 규정 제정, 무료 급식행사 등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일하이빌아파트는 공용통로 절전형 LED 램프 전면교체, 푸른 아산 21과 에너지 절약 실천 및 교육협약 MOU 체결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과 자치방범대, 부녀회, 산악회 등을 통한 공동체 화합 분위기 조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며 그린홈 으뜸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2013. 11. 15.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베트남 공무원 “한국 건설 정책 배우러왔어요!”

건설부 공무원 국내 연수...우리 건설업체 베트남 진출 확대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원장 김기석)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베트남 건설부 중견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의 정책과 기능·역할을 소개하고 한국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발전, 한국의 건설산업 육성·지원 정책 그리고 한국의 건설 기술경쟁력 제고·정책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그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베트남건설도시간부교육원과 2007년부터 교류협력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금년 6월까지 6차에 걸친 협력회의 개최와 2차례의 국내 연수를 실시하

는 등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 건설부 중견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선진 건설정책과 제도를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 11. 1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대전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중구, 서구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 1,975필지 1,893천㎡ 선정 추진

대전시가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 중 6개 지구 1,975필지 1,893천㎡(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 748억 원)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지정 심의·의결을 마치고 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금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중구 정생1~3지구 토지소유자 2/3가 동의하고, 서구 매노 1지구와 우명 1~2지구도 각 2/3 이상 동의하여 사업지구 지정 요건에 충족되어 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금번 재조사 사업지구는 지역적으로 보면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밀리거나 틀어지는 불규칙형으로 그동안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시는 금번 사업추진으로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형화시켜 나가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는 현실경계를 조정해 토지이용가치를 크게 높이고, 수치화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주민 간 갈등 및 경계분쟁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지적 구축이 완료되면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

쟁력이 강화되는 등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측량은 GPS등 최첨단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높였다”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될 경우 경계 분쟁 등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지적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2013.11.20.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지적과

‘원도심 활성화’ 우리가 앞장선다

원도심 활성화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수료식 성황리 개최

인천시가 주최하고 청운대학교 주관으로 운영한 ‘2013년도 원도심 활성화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수료식이 26일 원도심의 상징적 장소로 구 인천대학교 본관을 리모델링해 개교한 청운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아카데미 과정은 지난 9월 24일부터 8회의 강의와 2회의 현장견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강생 169명 중 소정의 교육을 마친 109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총 10주차 과정으로 진행된 아카데미를 통해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전략과 방법,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에 대한 설명 등을 다뤄 인천의 현안에 공감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2회의 현장견학을 실시해 선진 우수사례의 기법과 함께 우리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

최근 도시재생정책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보전·개량·정비 방식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같은 시민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시민 맞춤형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인천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는 이러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제공과 함께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의 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 주도 사업의 조기정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획됐으며, 교육과정의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운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1.27.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도심재생활동 지원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 U-산복도로 르네상스 완료, 서비스 제공 실시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산복도로지역에 U-IT 기술을 접목된 복지·생활정보 통합전달

부산시는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산복도로지역에 도심재생 활동 및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U-IT 기술을 활용한 ‘U-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하 U-산복도로 사업)’을 완료

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U-산복도로 사업은 △복지정보 통합전달 △주민참여형 도심재생 지도 △U-에듀피아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U-시범도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0%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3월 4일에 착수되었으며 10월 31일 완료되었다. 그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11월 26일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8일 본격적으로 미디어보드와 U-산복도로 르네상스 홈페이지 운영을 개시한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정보 통합전달서비스'는 중앙부처,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지역 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복지 관련기관의 복지정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마을만들기 정보 및 생활정보를 미디어보드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미디어 보드는 사하구 감천마을에 설치하는 8대를 포함 총 17대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주민참여형 도심재생 지도서비스'는 커뮤니티 공간의 다양한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인 의사결정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심재생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U-에듀피아 서비스'는 산복도로지역의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멘토링 제도를 활용한 학습 지도 및 감성지도 등 참여형 교육체계를 통한 쌍방향 커뮤니티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산복도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심재생사업에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지역의 U-City 사업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미디어보드

2013.11.28.
부산광역시 유시티정보담당관

건설 인허가시스템, 민원 2단계로 축소

CALS·포털시스템 개선...건설기술·통계 등 콘텐츠 확충

건설사업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국토교통동향 및 건설 기술·통계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건설기술자 등의 민원 편의 제고와 다양한 건설정보 제공 등을 위해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의 "건설인허가시스템"과 "포털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12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선, "건설인허가시스템"은 인허가 신청단계가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되며 인허가 통계 및 민원인별 도로·하천 점용신청·허가증 발급 시스템 등이 개발되어 운영된다.

다음으로 건설업체·건설기술자 등이 「건설CALS」의 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포털시스템"은 화면의 메뉴와 사용도구가 사용자 위주로 재설계되고 국토교통동향, 건설기술정보 및 건설사업통계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운영된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2013년부터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이 노후 되어 처리 속도가 늦고 사용기능도 불편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금년 1월부터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2014년에는 「사업관리시스템」·「시설물관리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 「사업관리시스템」 : 건설업체 등이 도로·하천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시스템

「시설물관리시스템」 :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의 교량·터널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건설업체, 건설기술자 및 정부의 건설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모바일 이용환경 등도 구축하여 「건설CALIS」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3. 11. 28,
국토교통부

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만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56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공동작업장, 북카페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CCTV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경로당을 신축하게 된다. 경로당은 국비 7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248㎡로 건립될 예정으로 노인 여가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5차례의 주민 워크숍을 실시해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이 완공되는 2015년에는 낙후된 정주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2013. 11. 2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거환경정책관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첫 삽을 뜬다

남동구 '만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기공

인천시는 29일 남동구 만수동 만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구역 내 경로당 신축 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인천시는 전면철거 방식을 탈피한 기존 주거지를 보존·개량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만부구역을 포함한 선도사업 8개 구역을 선정했다.

만수동 1번지 일원에 위치한 만부구역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 선정

이슈와 연구동향 #7

주민참여형 도시재생(2008~2013)

글·진행 오병록(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초빙교수)

도시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면적 철거위주의 재개발이나 뉴타운과 같은 도시정비보다는 기존의 지역 또는 마을을 보전하면서 개선시키는 도시재생이 도시개발의 주요한 흐름이 되었다.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더 나아가 경제적 측면까지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주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도시재생의 경향은 기존의 지역 또는 마을을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 또는 마을의 특성을 살려 양호한 부분은 유지하면서 불편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 갖추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시정비 사업이 추가되었고, 최근 서울시 연남동에서 첫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이후 전면철거식의 주택재개발이 아닌 보전하고 개선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또다른 특징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사업의 추진이라는 것이다. 기존 도시계획사업에서의 '공청회'나 '공람' 또는 '공고'와 같은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의 초기부터 지역 또는 마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안을 수립하며, 환경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추진 방식이다. 도시를 개발하고 마을을 개선하는 것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마을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의식을 갖고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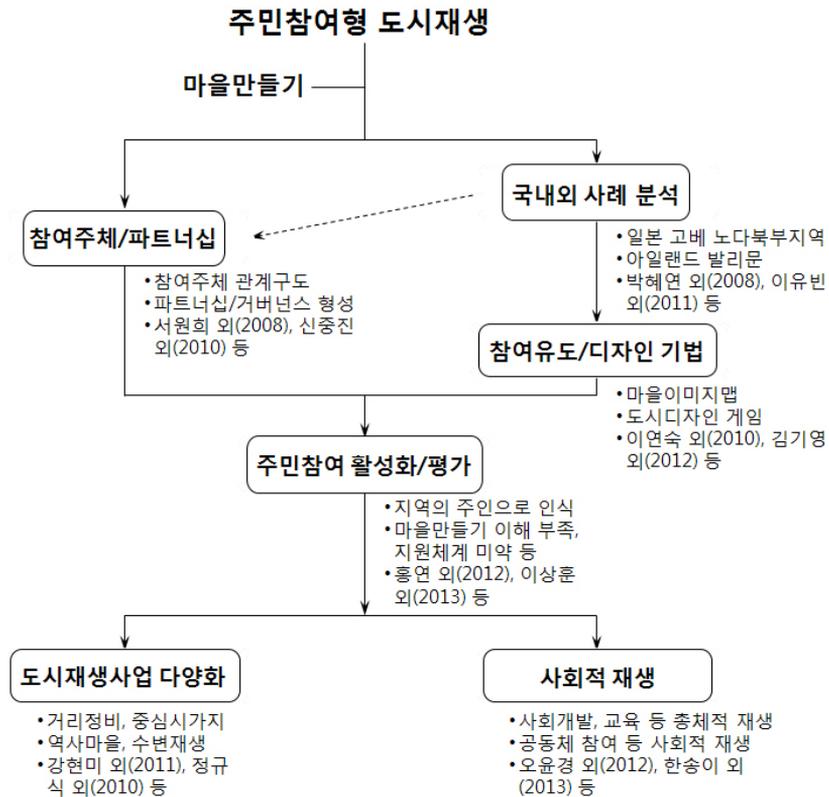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이나 마을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은 그동안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동향 (~2007)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 또는 국외 마을만들기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마을만들기 자체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일본의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에서 비롯됐기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거나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사례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실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주민, 행정, 시민단체 등의 각 참여주체,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과의 관계, 사이버공동체에 의한 마을만들기, 농촌에서의 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참여 적용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의 연구 동향

최근의 연구의 연구 동향을 보면, 주민참여가 마을만들기의 가장 핵심이므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참여주체로서 주민뿐만 아니라 행정, 전문가 등이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연구가 있었고,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연구도 다수 찾을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주민상호간 의견 소통을 위한 계획 및 디자인 기법을 소개한 후 적용가능성을 찾아보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마을만들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마을만들기를 평가하여 개선점을 찾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로 대표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주거지만이 아닌 거리나 중심시가지의 정비 그리고 역사마을이나 수변공간에서의 도시재생을 모색해 나가고,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을 위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참여주체와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인 마을만들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그 중에서 주민이 가장 핵심적인 참여주체가 되고, 행정과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참여주체로서 적극 참여하게 된다.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그리고 주민을 도와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나가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되는 참여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각 주체들은 개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마을만들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참여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상호간 의견교환과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주체들의 역할과 그들 간의 상호 관계구조도, 그리고 성공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해 파트너십 형성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도입방안

서원희, 이현희, 강준모, 황기연(2008)

- ① 미국 시애틀의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p.258)
- ② 주민참여에 있어서는, 시애틀의 경우 주민이 기획과 집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의 문제 분석,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위임을 통한 수행까지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계획단계 참여, 활동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만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기획, 집행에 대한 권한은 주어지지 않음.(p.266)
- ③ 또한, 시애틀의 거버넌스 체계는 주민이 직접 커뮤니티 조직을 구성하여 계획과 시행을 관장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조례 수립까지 관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직을 구성하여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결국 참여의 범위는 공람, 공청회 참여에 그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역할 수행할 뿐임.(p.267)
- ④ 개선방향으로서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의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 검토와 예측을 통해 자신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환경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위해 스스로가 감내해야 하는 것을 이해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계획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주민, 공공, 용역사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의견을 수렴할 통합추진체계의 설치를 제시함.(p.268)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방안

천현숙, 김근태 (2008)

- ▶ 1970년대 후반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구축 시 고려요소들을 잘 보여주는 영국 세필드 도시재생 사례를 연구함.(p.20)
- ▶ 세필드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도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주체들인 세필드 개발공사, 도시재생회사(세필드 윈), 도시개발회사(창조도시세필드)의 역할, 활동, 재원운영, 성과를 고찰함.(p30-43)
- ▶ 세필드 도시재생을 통해,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적 재생 지향, 도시재생 주체의 역할로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강화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의 추진, 중앙, 광역, 지방정부 간의 다층적 파트너십 형성, 파트너십 형성으로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한 다양한 주민참여전략에 따른 도시재생의 시행을 시사함.(p.43-45)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조 특성 연구

신중진, 송승현 (2010)

-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가 되기 위한 참여주체들의 관계구조 변화와 특성을 분석함.(p.295)
- ▶ 마을만들기가 진행되면서 이해정도가 모두 다르고 각자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초기의 추진주체들이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를 쌓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기존 마을의 활동 조직들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구성되고, 지역시민단체의 지원을 통해 협의회가 완전한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됨.(p.305)
- ▶ 공간개선 등의 세부사업 진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구역 주변 주민들은 단발적인 참여에 그치므로 사업 초기에 마스터플랜 작성시 구체적인 환경개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유로 사업추진의 실현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p.306)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

문경환, 신예철, 최정봉, 구자훈 (2012)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지구 중 하나인 서원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전후의 사회적 네트워크 효과를 비교 분석함.(p.268)
- 사업에 따른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형성과 신뢰변화가 일어났고, 관계망 전체의 신뢰수준도 증가함. 신뢰수준의 상승이 기대보다는 크지 않은 이유는 이미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므로 새로운 관계형성의 여지가 낮음. 신뢰수준의 양(+)적 증가는 주로 마을대표간, 마을대표와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주민 사이에 나타났고, 부(-)적 증가는 사업에 동의는 하지만 주택 층수 제한 또는 담장 철거 후 마당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주민과 마을대표 사이에 나타남.(p.274-275)
- 관계유형 변화에서는 마을일, 이웃일에 대한 의견 교환관계가 증가하였으나, 개인생각 공유관계, 도움관계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계획이 시작되면서 입장 차이에 따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 것으로 보임.(p.275)
- 중심성 분석에서 중심성이 증가하였는데,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네트워크 구조는 중심적 역할자로서 마을대표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하였고, 전반적으로 마을대표에게 의지하는 주민수가 증가함.(p.275)

국내외 사례분석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외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의 마찌즈꾸리를 조사 분석하고, 프랑스의 공공임대단지 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그리고 아일랜드의 발리문에서의 재생사업을 분석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물론 국내에서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 연구들도 상당하다. 결국,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더불어 정보의 전달과 공유, 갈등의 해결 노력,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노다북부지역 마을만들기
및 주민참여기법 사례연구**

박혜연, 안창현, 이연숙(2008)

- ▶ 일본 고베시 노다북부지역에 대한 관찰기록, 전문가와의 워크샵, 뉴스레터/유인물 등의 기록을 통하여 지역의 환경정비 방법과 주민참여 활동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p.300)
- ▶ 주거지 정비를 위한 환경을 개선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마을경관유도형지구계획'의 일환으로 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가정의 울타리를 없애면서 도로를 확폭하여 도로정비에 의하여 환경을 개선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에 대응하여 마을협의회 대표와 주민들의 노력을 통한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였음.(p.302)
- ▶ 환경정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활동은 정비된 골목길의 이름을 짓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공간적인 구심점을 마련하며, 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뉴스레터와 네트워크 활동을 하였고, 이는 지역 주민의 마을에 대한 애착심 향상, 공동체 의식 고취, 참여에 따른 소유의식과 정체성의 증진을 이룸.(p.303)
- ▶ 환경정비 이후에 관리과정에서는 주민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관리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원칙을 정하거나 안내 및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확산되어 지역 정비의 효과를 증진시킴.(p.303)
- ▶ 이런 마을만들기 결과, 워크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웠고, 다른 지역과 달리 주거지정비 후 인구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행정과의 협력으로 고령자들의 고용 창출과 효율적 관리, 이용자 증가로 수입 증가라는 효과를 얻음.(p.304)

**프랑스 공공임대 주거단지 재생
사례연구**

장한두, 제해성(2010)

- ▶ 임대주거지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프랑스의 공공임대단지는 파리시 외곽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교통이용 조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단지 옥외공간의 활용도가 낮으며 거주세대의 55%가 주거비보조금을 받을 정도의 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단지의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과정을, 네쇼넬가, 나셀, 까라벨, 루스, 메리저 주거단지를 사례로 살펴보고 특성과 시사점을 분석함.(p.9)

- 프랑스 공공임대 주거단지에서 재생사업의 특성은 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관리기관의 협력을 통해 협의회 구성과 장기적인 협의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의 사회주택 개선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서는 주민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주민참여기금을 마련하여 기초자치단체, 관리기관, 시공사,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주민의사취득시스템을 통해 주민의 의식과 만족도를 조사하며, 단지내 주거복합시설을 도입하여 단지환경을 개선하고 단지내 옥외공간에 대해 보안문제 등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적용하여 주거단지의 재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음.(p.21-22)
- 사례분석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공공의 역할이 제도적 측면 보다는 재정지원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뤄질 필요와 주민참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원칙들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측면의 지원방안의 단계적 마련이 요구되며, 주거단지 노후화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리모델링사업제도의 정비와 증축가능 범위의 확대 등 다양한 계획안 적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함.(p.23-24)

**발리문 지원협력기관 특성에
관한 연구**

이유빈, 안창현, 이지연, 이연숙(2011)

- 과거 빈곤과 마약 등의 사회문제로 점철되었던 아일랜드 발리문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참여 과정과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생사업을 진행중에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지속적으로 발간된 뉴스레터를 분석함.(p.3)
- 뉴스레터의 주민참여 기법은 정보공유(현장상담, 예약상담, 주민강좌, 질의응답, 자문협의, 주민만남, 포럼미팅, 추첨행사, 전시회, 설명회, 기념식행사), 주민활동(여가·문화활동, 기부·봉사활동, 지역장터, 축제 및 행사, 캠페인, 주제별대회, 워크샵, 유아·어린이·청소년·고령자 참여, 컴퍼런스, 현장방문), 의견반영(조직결성, 공청회, 시민배심원, 주민회의, 개인인터뷰, 설문조사, 의견조사, 의견모집)으로 분류됨.(p.4)

다양한 주민참여 도시재생 기법의 도입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신효진, 신중진(2008)

- ▶ 발리문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특성은, 뉴스레터 발간 및 실질적 연락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재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상세히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무관심을 방지하고 상호교류를 도모하였고, 전문적 영역에서의 주민 소외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유치하여 주민의 교육과 학습에 힘쓰고 그들의 지식적 소양을 길렀으며, 고유한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어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무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남. (p.5)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직접 주민을 찾아가 지역의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등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종합된 주민들의 의견이나 계획의 방향 등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과 다른 참여 주체들간의 상호간 의견교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여, 그 역할로서 워크숍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주민은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지역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발전방향이나 향후 지역의 미래 모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 이미지맵'이나 '도시 디자인 게임'과 같은 계획기법의 사용을 제시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는 방법인 마을만들기 워크숍은 기존의 설명회등 일방적인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상호교류와 협의의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에도 워크숍의 목표와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다면 일시적인 이벤트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수법으로서 위치설정과 사례분석(독산3동)을 통한 효과적인 워크숍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p.119-120)
- ▶ 특정계층의 워크숍 참여만으로는 참여디자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특히 반대 계층의 워크숍 참여를 고려하여 기획해야 함. 통학로의

경우에도 어린이만 참여하는 워크숍이 아니라 통학로 조성이 전체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갖는 의미와 대상지의 현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마을계획이 수립되어 가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주민입장에서는 비용측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에 대한 합의형성 과정을 주민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p.119-120)

주거지 정비지역 주민 워크숍을 통한 마을이미지 맵 제작도구의 효용성 연구

이연숙, 김주석, 정은정(2010)

- ▶ 주거지 정비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더라도 주민이 가지는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여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간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쉽고 구체화된 의견교환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을이미지맵 제작 도구의 효용성을 주민 워크숍을 통하여 분석함.(P.68)
- ▶ 실제 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민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해 마을이미지맵 제작도구를 개발하고, 워크숍에서 기존의 주민워크숍 진행기법을 시행한 후,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마을이미지맵 제작하여 도구 사용 전후의 주민참여 변화를 관찰함. 관찰 결과, 도구 활용에 따라 적극적인지 못했던 주민들도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였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낮은 주민들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주거지 정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주민들도 도구를 통해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이해할 수 있었음.(p.72)
- ▶ 워크숍을 통해 검증된 도구의 효용성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의견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의견개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상호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거나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이러한 상호간의 의견소통과 이해 증진으로 주민들의 합의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서로다른 지식기반과 언어를 가진 전문가와 행정,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가능하였음.(p.75-7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참여워크숍에서 도시디자인
게임 활용에 관한 연구**

김기영, 김철영(2012)

- ▶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을 이해시키고 협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시디자인 게임을 활용한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도시디자인게임의 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함.(p.332)
- ▶ 국내에서는 서울휴먼타운 사업에서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디자인게임 형태의 주민참여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전체적인 워크숍의 진행자가 중심이 되고 주민과 함께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형태로 진행함.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공유하여 카드 목록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 한 후 1차 워크숍에서는 목표이미지카드를 통한 목표이미지게임을, 2차 워크숍에서는 공공공간이미지 카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계획안을 평가하는 공공공간이미지게임을, 3차 워크숍에서는 사업계획 모형을 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디자인 워크숍으로 진행함.(p.335)
- ▶ 영국의 Building Futures Game에서는 다양한 미래상황을 미리 경험해보고 지역의 문제점과 대안별로 보드게임 형태로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방식임. 미국의 Block Exercise 워크숍 지원 도구는 지역 디자이너와 한 팀을 이루어 도시 디자인게임 형태의 협의프로세스를 통해 지역 내 건물의 용도와 높이, 면적까지 작성 가능한 3차원적 방식임. 미국의 UrbanPlan 지원 도구는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갈등 해결의 협의과정을 체험하고, 대상지 베이스맵에 레고블록을 배치함으로써 장래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3차원적 도시 디자인게임임.(p.335-336)
- ▶ 국내 사례의 경우는 주민이 진행자와 함께 협의과정을 거치는 결과중심의 공동 의사결정 형태인 반면 국외의 경우는 진행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주도적인 협의과정 중심의 완전의사결정 형태로 진행됨. 또한, 국외처럼 정해진 매뉴얼과 표준화된 도구와 지표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임 진행과 유연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특정단계가 아닌 도시계획 전 과정을 통해 패키지형태의 도시디자인게임 활용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와 계획과정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p.336-337)

주민참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평가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의 성패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소식지 등의 발행, 설명회의 개최, 거리 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주도의 주체별로 분류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한 쿤통재개발사업을 분석한 연구 등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어 왔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행정지원에 의한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거주후 평가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보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하는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개선안 연구

홍연, 이상호(2012)

- ➊ 홍콩 도시재생 중 가장 대표적이고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진 쿤통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적극적 사업참여를 유도한 사례임.(p.56)
- ➋ 홍콩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형태를 행정주도형, 전문가주도형, 시민주도형, 복합적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행정주도형 주민참여 형태는 URA(Urban Renewal Authority, 도시재개발국) 의장, 입법의회 의원, 쿤통구의회 의원 등이 400여명의 주민과 대화를 하고, 97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식지, 전시회, 팸플릿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함. 전문가주도형 주민참여에서는 비영리단체인 특별위원회와 자문그룹을 통한 자문, 도시재생 관련 교육과 환경에 대한 교육, 조사보고서 발표, 설명회와 포럼 개최 등 전문가의 활동으로 진행됨. 주민주도형 주민참여 방식에서는 기독교 가정서비스센터라는 시민단체의 활동, 사업방안에 대한 거리투표, 현장인터뷰 등을 진행함. 복합적 주도형 주민참여 형태로는 우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워크숍 참여로 설계에 동참,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지면 및 온라인매체를 평론을 받아 보고서 분석과정에 반영되도록 함.(p.59-61)
- ➌ 홍콩에서의 주민참여는 URA가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법인단체로 정권교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자주적, 연속적,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며(행정주도형),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문가의 자문 외에도 교

육, 보고서, 포럼, 주민과의 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전문가주도형), 행정, 전문가 및 주민주도형과 병행하여 참여 효율을 높이고 주민과의 거리를 좁혀 보다 실질적, 효과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으나(복합적주도형), 홍콩의 주민참여는 행정과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참여는 여전히 수동적임(주민주도형).(p.62)

- ▶ 행정이 인본주의 원칙하에 주민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통해 도시재생의 주인이 지역주민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주었다는 시사점을 보여줌.(p.62)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이상훈, 이건원, 정윤남, 김세용(2013)

- ▶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정릉1동에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지역대표주민, 지역건축가, 도시아카데미 운영 담당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p.138)
- ▶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골목길 화단조성 사업’과 ‘어린이 통학로 보도설치 사업’을 통해 가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였고, ‘정다운 정릉이야기 사업’과 ‘주민공동시설 건립사업’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깊게 형성되는 성과를 이룸. 마을만들기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실현에 대한 자심감이 형성되었고,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주민간의 배려심이 형성되는 등 지역 커뮤니티를 고취하는 효과를 이룸.(p.146)
- ▶ 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완료된 사업의 성과는 미미한데, 이는 주민간의 의견조율 과정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임. 또한 주민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고 지원단체가 부재했으며 사업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업의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전문적인 역량의 부족, 연대지원체계의 미약,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체계의 불합리의 한계를 보임.(p.146)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업대상의 다양화

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등 주거지의 정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지역의 정비나 개선에 대한 필요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중심시가지 뿐만 아니라 거리정비, 소공지 등 유희공간의 조성, 옛 물길 조성, 역사마을의 보전, 수변공간의 재생, 그리고 농촌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재생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역사마을의 참여형 보존관리계획을 위한 제도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강현미, 박소현(2011)

- ▶ 양동마을과 같은 정주형 역사환경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풀기 위해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참여형 역사마을 보전관리를 위하여 보존협의체의 수립에 대한 협의와 지원을 담는 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시함.(p.242)
- ▶ 기존의 역사마을 보존관리의 문제는, 보존관리가 전적으로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고 보존관리방식 및 주민참여의 범위가 제한되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마을주민 및 보존회의 역량 부족이 결부되어 주민참여의 가능성과 역할을 제한하게 됨. 보존회가 주민과 공공을 중재하는 역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임.(p.243-244)
- ▶ 이에, 준공공적 성격의 보존협의체를 수립하기 위한 주민협의 과정을 거쳐 보존협의체 지원조례를 제정을 추진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의 시도를 추적하여 시사점을 도출함.(p.250)
- ▶ 보존협의체 지원조례는 역사마을 보존관리에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대응이고, 물리적 환경보존에 치중한 보존 관리방식을 벗어나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권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보존관리의 패러다임이 보존의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되었으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주민참여형 보존관리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다 줄 기반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와의 관계에서 주민생활의 불편함과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한 갈등의 근본적인 해소에 대한 한계와 보존협의회에 전문가의 직접 참여가 어렵게 되어 보존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예상됨.(p.250-251)

수변 재생을 통한 도시 재생의 사례도시 비교분석

정규식, 김영, 서익진(2011)

- ▶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수변공간의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나라(창원, 여수, 목포)와 일본(시모노세키, 모지, 고쿠라)의 사례 비교분석하여 워터프런트 조성 과 운영에 필요한 교환적 가치를 갖는 함의를 도출함.(p.269)
- ▶ 한일간 수변재생의 차이점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수변재생이 도시(도심)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역사성과 복합성의 디자인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개발주체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공공의 참여와 주도성은 지나치게 강하지만 민간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고 국제적 네트워크의 활용이 거의 없기 때문임.(p.289)
- ▶ 이러한 차이는 항만 관리 및 재개발의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인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권한이 전적으로 국가소관으로 되어 있어 중앙정부에 의한 장기적인 성격의 계획수립과 시행함으로써 고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에 기인함. 또한 주민참여 운동이 일본에서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 개발독재의 경험을 가진 역사적, 경험적 차이에서 기인함.(p.290-293)
- ▶ 사례를 통해, 도시공동체가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의 수변공간 개발절차와 운영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과 기존 도시와의 맥락적 통합을 통한 개발이 필요함.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시민이 계획의 대상이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직접 관여가 요구되고, 개발 초기의 행정부문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p.293-295)

사회적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기존의 개발이나 정비는 주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우쳐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주변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지만 주민들의 삶에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해결책으로 도입된 것이 도시재생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아일랜드의 발리문 주거지 재생을 사례로 복지, 교육, 안전 등 사회적 측면까지 재생을 위한 분석한 연구를 포함하여 삶의 질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비물리적인 범위까지 재생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발리문 주거지 재생의 사회적 재생특성연구

오윤경, 이지연, 이연숙(2012)

- ▶ 도시재생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더블린시의 발리문 주거지 재생 사례를 분석하여, 물리, 환경적인 도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을 복합적으로 재생하는 총체적 재생의 관점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재생의 특성을 분석함.(p.192)
- ▶ 발리문의 사회적 재생 프로그램은 사회개발과 웰빙(복지), 교육,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 주택, 안전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의 재생을 통해 사회적 재생을 유도하거나, 사회적 가치의 재생을 통해 물리적 장소의 재생을 실현하기도 하고 쌍방향 소통을 의미함. 또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서비스제공 및 참여,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임.(p.193)
- ▶ 사회개발과 웰빙 - 지역 파트너들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지제공 체제 구축, 물리적인 복지시설 공급과 복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공급(p.193)
- ▶ 교육 - 더블린시립대학 및 국립아일랜드대 발리문캠퍼스와의 제휴를 통해 부담 없는 교육이 가능도록 하였고, 평생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발리문 사회적 재생에 크게 기여함.(p.193-194)
- ▶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 - 물리적인 시설과 함께 사회문화적 프로그램 동시 제공. 예술 및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p.194)
- ▶ 주택 - 발리문도시재생회사라는 비영리법인의 주택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택 유형, 크기, 부동산권리, 건축디자인들을 제공함(p.194)
- ▶ 안전- Safer Ballymun이 출범하여 도보순시, 대화순시를 통해 안전 현안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제공 및 교환(p.194)

마을만들기가 지역정체성과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송이, 강준모(2013)

- ▶ 성미산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경로분석을 통해 마을만들기가 지역성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p.419)
- ▶ 마을만들기는 삶의 질, 생활환경개선, 재생·정비, 정주성 강화, 마을만들기에 높은 정 인식에 영향을 끼침.(p.420)
- ▶ 마을만들기가 지역적 정체성에 높은 상관관계(경로계수 0.95)를 보여, 지역의 크고 작은 생활공간 가꾸기, 생활프로그램, 문화활동의 증진 등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매력과 특별함, 상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함. 마을만들기가 지역의 공동체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명(영향계수 0.83)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과가 지역의 애착을 높이고 이웃과의 친밀성을 높이며 소속감을 부여한다는 것을 뜻함. 공동체 정체성이 지역의 사회적 가치에도 영향(0.4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적 특성이 사회적 가치로 환산되고 집단의 의식 속에 인지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p.423)

[주민참여 도시재생] 키워드 분석리포트

1. 최근 5년간 국내 발표 논문 수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논문수	20	11	16	15	18	12
전년대비 성장률	-	-45%	45%	6%	20%	-33%

2. 주요저널

순위	저널명	전체 논문 수
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
2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
3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
4	국토계획	11
5	도시설계	7
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
7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

3. 국내 주요 연구자

<p>김진경 신중진 양재혁 이연숙 이유빈 이주현 정은정 조연경 흥연</p> <p>주저자 기준</p>	<p>강준모 구자훈 김미연 김세용 김 영 김주석 김진경 김철영 박소현 박은지 박현신 송승현 신중진 신호진 안창헌 양재혁 우신구 윤혜경 이동주 이명훈 이상호 이연숙 이유빈 이재준 이정형 이주현 이지연 전원식 정은정 제해성 조동범 조연경 채진해 천현숙 황희연</p> <p>모든저자 기준</p>
--	---

4. 주요 관련 키워드

[주민참여] [도시재생] [참여주체] [거버넌스] [마을만들기] [계획과정] [파트너십]
[도시만들기] [워크샵] [이미지맵] [주거지 정비] [도시재생사업] [정비사업] [네트워크] [주거지 재생]
[갈등] [지역정체성] [활성화] [설계지원 시스템] [추진주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관련 주요 논문 리스트

* 검색키워드 : 주민참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도시만들기
 * 검색사이트 : www.auric.or.kr

번호	제목	저자	수록지	발행일	권 호
1	주민주도형 지구환경계획에 대한 한일비교연구	최효승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199902	v.1 n.1
2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 참여	김찬호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0006	v.13 n.1
3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례	Nakano Hiroshi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00106	v.3 n.2
4	살터자치의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운동	손상락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00106	v.26 n.1
5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청주시 중문지구 사례: 청주시 사창동 총북대 중문지구를 중심으로	김동호 ; 박지훈 ; 황희연	충북개발연구원	200200	
6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김동호 ; 박지훈 ;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210	
7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활동내용과 참여주체에 관한 연구	김은정 ; 김윤이 ; 신호진 ; 신종진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04	
8	청소년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과 향후 과제	신호진 ; 김은정 ; 신종진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04	
9	농촌마을만들기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효승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00502	v.7 n.1
10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주거지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신종진 ; 배응규 ; 김은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504	v.21 n.4
11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걸고 싶은 거리 만들기" 추진에 관한 연구 -걸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장준호 ; 송혜진 ; 이보연 ; 이재미	지역사회발전연구	200512	v.30 n.3
12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상민 ; 이명규 ; 김귀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710	
13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양진영 ; 이명규 ; 김귀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710	

제목	저자	수록지	발행일	권 호
14 아파트 사이버 공동체를 통한 지역거주 동네건축가의 마을만들기 참여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	윤주선 ; 최재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10	
15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의 선호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송혜승 ; 이명훈 ; 이명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710	
16 대학주도의 대학마을 재정비방법에 관한 연구	이창호 ; 배응규	국토계획	200711	v.42 n.6 (통권 159호)
17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현황과 운영과제 연구	신중진 ; 배기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801	v.24 n.1
1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신중진 ; 신효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802	v.24 n.2
19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조연경 ; 우신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04	
20 미국의 도시재생수법으로서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에 관한 연구	이운웅 ; 김민경 ; 이정형	도시설계	200806	v.9 n.2 (통권 제31호)
21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도입방안	서원희 ; 이현희 ; 강준모 ; 황기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06	
22 파트너십형성을 통한 도시재생방안	천현숙 ; 김근태	국토연구	200806	
23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후실계평가	박현신 ; 강준모 ; 황기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06	
24 한국과 대만의 마을만들기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서순탁 ; 이병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06	
25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의 선호사업에 관한 연구	송혜승 ; 이명훈 ; 이명규	국토계획	200806	v.43 n.3 (통권 163호)
26 도심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의사표현의 도출	김태영 ; 반상철 ; 원세웅	도시설계	200809	v.9 n.3 (통권 제32호)
27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약속 활용에 관한 연구	신중진 ; 송승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810	v.24 n.10
28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설계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김우도 ; 김미연 ; 최진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0	
29 도시지역 마을만들기의 사례와 시사점 : 대구 삼덕동을 사례로	윤옥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810	v.14 n.5

제 목	저 자	수 록 지	발 행 일	권 호
30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 사례의 사업주제별 유형과 특성분석	황희연 ; 전원식 ; 박원규	국토계획	200811 v.43 n.6 (통권 166호)
31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도시재생 기능성의 연구	윤혜경 ; 이연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1 통권15호
32	일본 노다북부지역 마을만들기 및 주민참여기법 사례연구	박혜연 ; 안창현 ; 이연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1 통권15호
33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워크샵의 역할과 과제	신효진 ; 신종진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1
34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주제 및 추진주제 분석	전원식 ; 김남두 ; 황희연	도시설계	200812 v.9 n.4 (통권 제33호)
35	함평군과 나가하마시(長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비교연구	이윤석 ; 김세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812 v.24 n.12
36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비교연구	목정훈 ; 박종현	도시설계	200812 v.9 n.4 (통권 제33호)
37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이삼수 ; 이재수	국토계획	200902 v.44 n.1 (통권 168호)
38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이지혜 ; 이명훈 ; 전병혜	국토계획	200902 v.44 n.1 (통권 168호)
39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수법에 관한 연구	조연경 ; 김정민 ; 우신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904 v.25 n.04
40	주민워크샵 효율성 증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활용연구	정은정 ; 이연숙 ; 김주석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04 2009 v.1 (춘계)
41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체화 방안	최진도 ; 김영 ; 박진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05
42	지역기반 건축·도시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코디네이터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염철호 ; 차주영 ; 박인석	연구보고서(기본)	200905 2008 n.10
4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활용 연구	허윤경 ; 정은정 ; 윤혜경 ; 이연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05 통권16호
44	주민참여기법으로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활용 연구	정은정 ; 허윤경 ; 윤혜경 ; 이연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05 통권16호
45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 제도주의적 접근	박세훈 ; 천현숙 ; 전성혜	국토계획	200906 v.44 n.3 (통권 170호)

제목	저자	수록지	발행일	권 호
46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사례 연구	김묘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910 v.20 n.5
47	마을만들기 실행주체별 전략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선봉 ; 신창훈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00912 v.34 n.2
48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신중진 ; 신효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01 v.26 n.10
49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효과분석	강준모 ; 박현신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001 v.30 n.1-D
50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도 특성 연구	신중진 ; 송승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01 v.26 n.01
51	주거지 정비지역 주민 워크숍을 통한 마을이미지 맵 제작도구의 효용성 연구	이연숙 ; 김주석 ; 정은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002 v.21 n.1
5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실증 연구	유창균 ; 박성진 ; 송태갑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002 v.21 n.1
53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민참여형 유지관리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최유진 ; 박태근	대한건축학회 춘계 우수졸업논문전 수상논문 개요집	201004 제6회
54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설계지원 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미연 ; 여옥현 ; 최진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04 v.26 n.04
55	프랑스 공공임대 주거단지 재생 사례연구	장한두 ; 제해성	국토계획	201006 v.45 n.3 (통권 177호)
56	기성시가지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영 및 관리를 위한 어반디자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여경 ; 송준환 ; 이정형	도시설계	201006 v.11 n.2 (통권 제39호)
57	마을만들기 조례에 나타난 마을만들기의 특성	태윤재 ; 박소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07 v.26 n.07
58	해외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도시재생 계획 방향 연구	이영환 ; 박현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0
59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으로서 도시 내 소공지를 활용한 레인가든의 가능성	조동범 ; 김수란	한국조경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10
60	마을만들기에 있어 공유공간으로서 텃밭을 활용한 커뮤니티 가든의 가능성과 일상적 경관형성의 효과	김미향 ; 조동범	한국조경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10
61	소규모 지방도시의 지역특성을 이용한 마을만들기 사례 연구	김주석 ; 이연숙 ; 정은정 ; 박은지 ; 이혜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1 통권19호

제목	저자	수록지	발행일	권 호
62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과정에 관한 정성적 평가	양재혁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1012 v.12 n.04 (통권44호)
63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 관리 및 정비 지원방안	서수정 ; 임강륜	연구보고서(기본)	201012 2010 n.3
64	역사마을의 참여형 보존관리계획을 위한 제도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강현미 ; 박소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03 v.27 n.3
65	거리정비사업의 주민참여방식 비교를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 연구	채진해 ; 김성학 ; 양병이	한국조경학회	201104 v.39 n.2
66	주민참여형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연구	홍연 ; 이상호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04
67	근거이론을 적용한 마을만들기 갈등에 관한 연구	이민우 ; 정성원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04
68	발리문 자원협력기관 특성에 관한 연구	이지연 ; 이유빈 ; 윤혜경 ; 이연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05 통권20호
69	발리문 도시재생의 주민참여기법 특성 연구	이유빈 ; 안창현 ; 이지연 ; 이연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05 통권20호
70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	김동근	국토계획	201106 v.46 n.3 (통권 184호)
71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김우락 ; 구자훈	국토계획	201108 v.46 n.4 (통권 185호)
72	노후주거지역 유희공간 활용 사례 연구	이유빈 ; 이연숙 ; 박경남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1 통권21호
73	도시이미지전략이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강현 ; 강준모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1
74	주민 역량 강화 거점으로서의 일본 공민관 특성연구	이연숙 ; 이지연 ; 김광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1 통권21호
75	주민참여 커뮤니티가든 계획과정 연구	박은지 ; 이연숙 ; 안창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1 통권21호
76	친수형 마을만들기를 통한 옛 물길 조성방안 연구	민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11 v.27 n.11
77	마을 만들기를 통한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이주현 ; 최찬환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01111 v.13 n.4

제목	저자	수록지	발행일	권 호
78	수변 재생을 통한 도시 재생의 사례도시 비교분석	정규식 ; 김영 ; 서익진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1112 v.24 n.4
79	국내의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주현 ; 최찬환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01202 v.14 n.1
80	마을만들기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 분석	안현찬 ; 박소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02 v.28 n.02
81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른 도시주거 재생방식에 관한 연구	정재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04 v.28 n.04
82	쇠퇴주거지구 주민참여형 활성화사업 도출과정에 관한 연구	유재완 ; 황희연 ; 조진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2012 v.1 (총계)
83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	문경환 ; 신예철 ; 최정봉 ; 구자훈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84	마을만들기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연구	김진경 ; 김현 ; 이재준	국토계획	201204 v.47 n.2 (통권 190호)
85	발리문 주거지 재생의 사회적 재생특성연구	오윤경 ; 이지연 ; 이연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5 통권22호
86	주민조직에 의한 마찌즈크리 활동의 변천과정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윤철재 ; 김철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05 v.28 n.05
87	협업형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김용성 ; 김순호 ; 이명훈	국토계획	201206 v.47 n.3 (통권 191호)
8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거주 후 평가에 관한 연구	김혜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06 v.28 n.06
89	홍콩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개선안 연구	홍연 ; 이상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08 v.28 n.08
90	청주시 사직2동 마을만들기 단계별 특성연구	이규선 ; 성순아 ; 황희연	국토계획	201208 v.47 n.4 (통권 192호)
91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참여 주체 간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오다해 ; 김철영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0
92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참여워크숍에서 도시디자인 게임 활용에 관한 연구	김기영 ; 김철영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0
93	대학 스튜디오를 활용한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정지혜 ; 서유림 ; 신종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0 v.32 n.2

제목	저자	수록지	발행일	권 호	
94	총체적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본 수원시 마을만들기 특성 연구	박재현 ; 김서정 ; 정은정 ; 이연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1	통권23호
95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방안	배준형 ; 이종국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212	v.2012 n.01
96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용된 장소이미지통합 디자인의 유형에 관한 연구	김도연 ; 유재우 ; 장유경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212	v.2012 n.01
97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이상훈 ; 이건원 ; 정윤남 ; 김세용	도시설계	201302	v.14 n.1 (통권 제55호)
98	뉴타운 개발에 대한 주민의식분석 및 지역정체성 형성과정 고찰	정윤주 ; 이세연 ; 송지연 ; 표선영 ; 박진아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4	
99	마을만들기가 지역정체성과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송이 ; 강준모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4	
100	수원시 마을만들기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김진경 ; 민범기 ; 이재준	도시설계	201304	v.14 n.2 (통권 제56호)
101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임미나 ; 제해성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4	
102	폐선부지 활용을 통한 주민체감형 도시재생 디자인 연구	오지원 ; 정승복 ; 정현진 ; 조현민 ; 권영상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4	
103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정비의 갈등해소 연구	최성은 ; 이희정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4	
104	도시재생 거점시설 계획안의 개선에 미치는 주민참여 효과 연구	정연지 ; 이연숙 ; 이동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5	통권24호 (v.13 n.1)
105	주민실행조직 육성을 통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방안	이연숙 ; 이동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5	통권24호 (v.13 n.1)
106	행정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양재혁 ; 한영숙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1306	v.15 n.03 (통권64호)
107	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윤혜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08	v.29 n.8
108	참여주체에 따른 마을만들기 성과에 관한 연구	이석현 ; 채진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09	v.29 n.9

APU Story #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3년 11월, 4년간의 긴 시간 끝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용하던 건물이 있던 곳으로 경복궁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서울관은 부지 여건상 지하화 될 수밖에 없는 공간에 대한 동선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마당’개념을 도입해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고, 도심 속에서 미술관과 관람객의 관계 정립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 21세기 미래지향적 미술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관은 대지와 역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미술관의 형태를 가능한 절제하고 배경이 되도록 설계한 무형의 미술관이다. 또한, 관람자의 다의적 요구와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다층적 미술관이자 열린 미술관으로서 여러 관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미술관 주변으로 열린 다양한 입구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부지는 조선시대 소격서, 종친부, 규장각, 사간원이 있던 자리로 일제침략기 일본군의 수도육군병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으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기무사 등이 위치했던 역사적 유래를 가진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다. 1981년 종친부의 경근당과 옥첩당 건물은 현 정독도서관 자리로 옮겨졌으나 종친부 기단 원형이 추가 발굴됨에 따라 원래 위치에 이전·복원하였고, 일제 강점기 병원건축물인 기무사 부지는 2008년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시, 국가등록문화재 제378호로 지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종친부 및 기무사 건축물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활용하여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명소로 재탄생되었다.

글> 이경신(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브로셔 참고



<△ 사진 이경신(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주요시설

대지면적	27,264㎡
연면적	52,125㎡
규모	지하3층, 지상3층
전시공간	8,789㎡ 전시실 8개실
수장공간	3,912㎡ 작품보관고
문화·교육공간	4,677㎡ 강의실·세미나실 다목적홀 (300여 석) 영화관(150여 석)
자료서비스공간	1,994㎡ 디지털 미술도서관 아카이브
사무실	1,923㎡
주차장	14637㎡ 지하주차(총 394대), 장애인주차 (12대), 여성전용주차(75대), 관광버스주차(8대)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